

군산조선소, 새 주인 맞는다

HD현대중공업,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과 합의각서 체결 실사·구체적인 거래 조건 협상 통해 최종 계약체결키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3일 HD중공업의 최대주주인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과 군산조선소 매각 관련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군산조선소는 2000년대 후반 1조 8,200억원을 투자해 조성된 뒤 한때 지역 제조업의 핵심 거점으로 꼽혔다. 현대중공업이 직접투자한 것이 1조

4,000억원, 협력업체가 투자한 것이 3,000억원이다. 각종 조선업 관련 인프라와 시설구축비가 1,000억원,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지원한 보조금이 200억원 등이다. 부지 면적은 180만㎡ 규모다. 연간 조립량은 25만t 규모로 18만t급 벌크선 기준으로 12척을 건조할 수 있다.

조선소 생산능력 최대인 인양 능력과 선박 계류 역량을 보더라도 국내 최대급인 1,650t급 골리앗 크레인과 1.4km에 달하는 안벽을 갖춰 국내 대형 조선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준공 이후 조선업 불황과 수주 절벽의 여파로 2017년 7월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장기 휴면 상태를 거치다 2022년부터는 선박을 직접 건조하는 대신 울산조선소 등에 공급할 선박 블록을 생산하는 형태로 제한적 재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완전한 의미의 신조선 건조 물량은 아직 배정되지 않아 지역사회에서는 전면 재개발 또는 매각을 통한 정상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거래가 성사될 경우 군산조선소는 HD현대중공업의 비핵심 유류 자산 정리와 동시에 새 운영 주체를 찾는 수순을 밟게 된다.

업계에서는 군산조선소가 대형 도크와 생산 인프라를 갖춘 만큼 향후 블록 생산 확대, 특수선, 수리·개조(MRO) 등 다양한 활용 방식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HD현대중공업은 "실사 종료 후 감정 평가를 실시해 확정되는 기본자산가액을 기초로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실사 및 구체적인 거래 조건에 대한 협상을 통해 최종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신청사 건립 과정을 담은 감동적인 홍보 영상 상영으로 시작했다. 이어 주요 의뢰인과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 10명이 무대에 올라 익산의 밝은 미래를 알리는 기념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개청의 기쁨을 나눴다. 가수 박남정과 배아연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54년 만에 새 옷을 갈아입은 익산시청이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신청사 건립은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다. 1970년 지어진 기존 청사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로 꼽힐 만큼 노후화돼 안전성 문제와 공간 협소로 인한 시민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행사는 신청사 건립 과정을 담은 감동적인 홍보 영상 상영으로 시작했다. 이어 주요 의뢰인과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 10명이 무대에 올라 익산의 밝은 미래를 알리는 기념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개청의 기쁨을 나눴다. 가수 박남정과 배아연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54년 만에 새 옷을 갈아입은 익산시청이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신청사 건립은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다. 1970년 지어진 기존 청사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로 꼽힐 만큼 노후화돼 안전성 문제와 공간 협소로 인한 시민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은 HD현대중공업과 '군산조선소 자산양수도'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사진은 김익수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 부사장과 윤준호 HD현대중공업 기획부부장(오른쪽). (사진=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 제공)

군산금강미래체험관 동물 사육시설, 사실상 '방치 상태'

동물원법 개정 시행 3년 지나도 운영 방향조차 미정 환경부 군산시의회 "유지·폐쇄 방향 조속히 정해야" 군산시 "아직 의회 협의 단계 아냐... 내부 검토 필요"

동물 복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 동물원 관련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동물 사육 시설은 아직까지 운영 방향조차 정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2023년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서식 환경과 질병 관리 체계, 전문 사육 인력 확보 등을 갖춘 경우에만 동물원 운영을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 시설에는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2028년 12월 13일까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동물원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금강미래체험관의 준비 상황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현재 이곳에는 29종 173마리의 동물이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현 시설이 개정 법률이 요구하는 '장별 적정 서식 환경'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이다. 기존의 좁은 철장 중심 사육 방식으로는 허가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허가 기준을 충족하려면 시설 전면 리모델링과 함께 전문 사육사 4명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 경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면에서 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관련 시설개선 예산은 단 한 차례도 편성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의 방향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동물원을 유지하려면 시장의 정책 판단과 시의회 협의를 거쳐 시설개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폐쇄나 감축을 선택할 경우에도 현재 사육 중인 동물의 이관 계획과 시설 활용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취재 결과 군산시는 법 개정 이후 3년이 지나도록 두 가지 선택지 모두에 대해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동물원 허가제 전환이라는 제도 변화가 이미 예고됐음에도 관련 정책 검토나 행정 절차가 사실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시 내부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해당 부서는 현재 동물원 허가 취득을 추진하려는 의지 자체가 사실상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동물원 허가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군산시는 이를 통해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어려운 10종 50마리 미만 규모로 동물 수를 줄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 계획이나 시설 전환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사육 담당 공무원은 별도의 시설 이전이나 기증 계획 없이 동물 개체 수가 자연 감소하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대응을 보였다.

더욱 논란이 되는 부분은 행정 보고 체계로, 현재까지 군산시청이나 시의회에 동물원 운영 방향과 관련한 공식 보고나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시의 정책 결정이나 의회 협의 없이 담당 부서 차원에서 사실상 '시간 보내기'식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동물원을 완전히 폐쇄하는 대신 토끼나 다람쥐 등 소형 동물 중심의 체험형 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동물원 허가 대상이 아닌 10종 50마리 미만 규모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역시 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군산시의회 환경보위위는 "동물원 허가제 전환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사항인데 지금까지 구체적인 준비 상황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유지할 것인지 폐쇄할 것인지 방향을 조속히 정하고 그에 맞는 행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동물원 운영 여부나 시설 전환 방향에 대해 아직 시장 보고나 의회 협의가 이뤄진 단계는 아니다"며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군산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김영민)는 13일, 시청에서 군산우체국(우체국장 유현아)과 '인부살핌 우편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신청사 건립 과정을 담은 감동적인 홍보 영상 상영으로 시작했다. 이어 주요 의뢰인과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 10명이 무대에 올라 익산의 밝은 미래를 알리는 기념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개청의 기쁨을 나눴다. 가수 박남정과 배아연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54년 만에 새 옷을 갈아입은 익산시청이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신청사 건립은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다. 1970년 지어진 기존 청사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로 꼽힐 만큼 노후화돼 안전성 문제와 공간 협소로 인한 시민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행사는 신청사 건립 과정을 담은 감동적인 홍보 영상 상영으로 시작했다. 이어 주요 의뢰인과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 10명이 무대에 올라 익산의 밝은 미래를 알리는 기념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개청의 기쁨을 나눴다. 가수 박남정과 배아연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54년 만에 새 옷을 갈아입은 익산시청이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신청사 건립은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다. 1970년 지어진 기존 청사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로 꼽힐 만큼 노후화돼 안전성 문제와 공간 협소로 인한 시민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행사는 신청사 건립 과정을 담은 감동적인 홍보 영상 상영으로 시작했다. 이어 주요 의뢰인과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 10명이 무대에 올라 익산의 밝은 미래를 알리는 기념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개청의 기쁨을 나눴다. 가수 박남정과 배아연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54년 만에 새 옷을 갈아입은 익산시청이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신청사 건립은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다. 1970년 지어진 기존 청사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로 꼽힐 만큼 노후화돼 안전성 문제와 공간 협소로 인한 시민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익산시가 지난 13일 신청사 개청식에서 '익산시청 신청사 개청식'을 열고 54년의 오랜 기다림 끝에 '신청사시대'를 공식 선언했다.

익산시, '신청사 시대' 개막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익산시가 지난 13일 신청사 개청식에서 '익산시청 신청사 개청식'을 열고 54년의 오랜 기다림 끝에 '신청사시대'를 공식 선언했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청사라는 불명예를 벗고 시민들을 위한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익산시청이 지역 도약의 새로운 심장이 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는 신청사 건립 과정을 담은 감동적인 홍보 영상 상영으로 시작했다. 이어 주요 의뢰인과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 10명이 무대에 올라 익산의 밝은 미래를 알리는 기념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개청의 기쁨을 나눴다. 가수 박남정과 배아연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54년 만에 새 옷을 갈아입은 익산시청이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신청사 건립은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다. 1970년 지어진 기존 청사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로 꼽힐 만큼 노후화돼 안전성 문제와 공간 협소로 인한 시민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행사는 신청사 건립 과정을 담은 감동적인 홍보 영상 상영으로 시작했다. 이어 주요 의뢰인과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 10명이 무대에 올라 익산의 밝은 미래를 알리는 기념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개청의 기쁨을 나눴다. 가수 박남정과 배아연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54년 만에 새 옷을 갈아입은 익산시청이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신청사 건립은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다. 1970년 지어진 기존 청사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로 꼽힐 만큼 노후화돼 안전성 문제와 공간 협소로 인한 시민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군산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김영민)는 13일, 시청에서 군산우체국(우체국장 유현아)과 '인부살핌 우편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추진 맞손

생필품 배송·대면 안부 확인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6월부터 시행

군산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김영민)는 13일, 시청에서 군산우체국(우체국장 유현아)과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군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군산우체국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립·고독사 위험 가구에 생필품 꾸러미를 정기적으로 배송하고, 배송 과정에서 대면 안부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아파트 원룸 등에 거주하는 고립·고독사 위험군 80명이며,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신청사 건립 과정을 담은 감동적인 홍보 영상 상영으로 시작했다. 이어 주요 의뢰인과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 10명이 무대에 올라 익산의 밝은 미래를 알리는 기념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개청의 기쁨을 나눴다. 가수 박남정과 배아연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54년 만에 새 옷을 갈아입은 익산시청이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신청사 건립은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다. 1970년 지어진 기존 청사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로 꼽힐 만큼 노후화돼 안전성 문제와 공간 협소로 인한 시민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행사는 신청사 건립 과정을 담은 감동적인 홍보 영상 상영으로 시작했다. 이어 주요 의뢰인과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 10명이 무대에 올라 익산의 밝은 미래를 알리는 기념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개청의 기쁨을 나눴다. 가수 박남정과 배아연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54년 만에 새 옷을 갈아입은 익산시청이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신청사 건립은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다. 1970년 지어진 기존 청사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로 꼽힐 만큼 노후화돼 안전성 문제와 공간 협소로 인한 시민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행사는 신청사 건립 과정을 담은 감동적인 홍보 영상 상영으로 시작했다. 이어 주요 의뢰인과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 10명이 무대에 올라 익산의 밝은 미래를 알리는 기념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개청의 기쁨을 나눴다. 가수 박남정과 배아연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54년 만에 새 옷을 갈아입은 익산시청이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신청사 건립은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다. 1970년 지어진 기존 청사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로 꼽힐 만큼 노후화돼 안전성 문제와 공간 협소로 인한 시민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군산시, 현대차 9조 투자 선제대응 본격화

새만금 RE100 전담 인력 보강·투자지원 TF 구성... 윈스톱 행정지원 체계 구축

군산시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시범단지 지정 추진과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 규모 투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현대자동차 투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지원과 내 RE100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현대자동차그룹 투자지원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TF팀은 경제산업국장을 총괄로 하며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신성장산업과, 신재생에너지과 등 6개 핵심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로 운영된다.

군산시는 이를 통해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윈스톱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추진과 현대자동차 투자는 군산 산업구조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중요한 기회"라며 "전담 인력과 TF팀 운영을 통해 투자기업이 군산 투자를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이를 통해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군산시는 이를 통해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군산시는 이를 통해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윈스톱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추진과 현대자동차 투자는 군산 산업구조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중요한 기회"라며 "전담 인력과 TF팀 운영을 통해 투자기업이 군산 투자를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이를 통해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군산시는 이를 통해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군산시는 이를 통해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개최

'환승기록·익산편' 주제로... 옛 기차표·번호판 등 출품 가능

교통의 중심지 익산시가 시민들의 추억 속에 잠들어 있는 '길 위의 기록물'을 캐낸다. 익산시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제6회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환승기록·익산편'을 주제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익산을 연결해 온 '교통' 관련 기록물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전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대상은 △옛 기차표 △버스 회수권 △운전면허증 △이리역 폭발 사고 관련 기록 △경운기 부품 △자동차 번호판 등 익산의 교통과 이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기록물이다.

교통 기록물이 아니더라도 △익산의 옛 모습 △지역 축제·정책 관련 기록 △일상이 담긴 △사진·일기·영상 등

익산과 관련한 점수 가치를 지닌 기록물은 모두 출품 가능하다. 참가 방법은 익산시민역사기록관 누리집(archives.ksa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s3500@k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기록물관리계(인북로32길 1)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기록물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고, 결과는 7~8월 익산시민역사기록관 누리집에 공지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10월 공모전 전시회 개막식에서 진행 예정으로 △대상 1명(100만원) △최우수상 3명(각 50만원) △우수상 7명(각 30만원) △장려상 34명(각 10만원) 등 총 45명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청, 신청사 개청 기념 특별전 '미중' 개최

익산시청이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 탈바꿈한다. 익산시는 신청사 개청을 기념해 지난 13일 시민과 문화를 잇는 특별전 '시청 안 미술관-미중'을 개최했다.

'미중'은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예술로 반갑게 맞이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예술 작품이 시민의 삶 속으로 밀려 다가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시는 시청 1층과 지하 로비 두 공간에서 서로 다른 주제로 진행되며, 5월 3일까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시청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시청 1층에서는 익산시 '문화가 있는 날' 사업과 연계한 '익산예술의전당 소장품전이' 진행된다. 익산예술의전당이 엄선해 수집한 소장품들을 시민들과 공유하며, 지역 예술의 가치를 알리는 전시로 운영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농지에 성토나 절토시 사전 신고하세요"

군산시는 무분별한 농지 훼손을 방지하고 우량 농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시행 중인 '농지개발행위(성토·절토) 사전 신고제'에 대해 농업인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농지를 성토하거나 절토하는 등 개발 행위를 하려는 경우 필지 면적이 1,000㎡를 초과하고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cm를 초과할 경우 공사 전에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서를 위해서는 농지개발행위 신고서와 사업계획서(공사 관련 설계도서, 흙의 반입·반출처, 피해방지계획 등 포함), 농지 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지개발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성토만 해당) 등을 갖춰 군산시 농업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 없이 농지개발행위를 진행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익산=김만호 기자

군산시, 노인복지기관 통합돌봄 사업 설명회

군산시는 지난 13일 시청 상 황실에서 '노인복지기관 대상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내 노인 돌봄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기관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대상자 발굴 및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노인복지관 4개소, 노인맞춤돌봄기관 6개소, 새만금시니어클럽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방향과 기관별 역할 이해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지역 자원 연계 요청 방법 △2026년 노인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설문조사 실시를 위한 유의사항 사전 교육으로 진행됐다.

익산=김만호 기자

군산시, 노인복지기관 대상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교육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내 노인 돌봄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기관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대상자 발굴 및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노인복지관 4개소, 노인맞춤돌봄기관 6개소, 새만금시니어클럽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방향과 기관별 역할 이해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지역 자원 연계 요청 방법 △2026년 노인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설문조사 실시를 위한 유의사항 사전 교육으로 진행됐다.